

Gwangnam newspaper 21.12.2011

"예향 광주 아트가 꽃피어 있다"

- [고선주](#)

국내 첫 전시 연 스위스 화가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



작품 'mountain lake'를 설명하고 있는 화가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

"5·18 광주민중항쟁 등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직접 이곳에 와서 보니 작가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아트가 전반적으로 꽃피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6일 개막, 오는 24일까지 광주 갤러리 자리아트에서 '사람과 자연'을 테마로 해 국내 첫 전시를 열고 있는 스위스 바젤 출신의 사실주의 화가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39·Marcellus Steiner)는 소감을 이처럼 밝혔다.

그는 "두달여만에 'mountain lake'를 포함한 평면 14점 등 20여점을 전시에 선보이기 위해 쉼없이 작업을 해왔다"면서 "이번 출품작들에 대해 작품을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마 인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해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영적이고 신성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아마 그것은 마음이 살아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미 인도를 비롯해 이스라엘, 이집트, 모로코 등을 모두 둘러본 뒤 동양에 관심이 많아 결국 인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다"며 "결국 제 자신의 회화가 성스러운

것이나 영적인 것을 백그라운드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오른쪽)와 매니저 겸 부인인 정진이씨.

"내 자신만의 회화를 위해 대학교육을 거부했다"는 그는 "대학은 모두를 한길로 데려가니까 나는 내 길을 가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며 "학교나 대학의 스승을 정해놓고 그 밑에 배우지 않은 채 독학으로 그림작업을 펼쳐왔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순 쌍봉사와 고인돌유적지, 광주시립미술관 및 예술의거리 등 문화 예술 시설을 둘러보며 남도의 산세를 포함한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는 스위스 도르나크 소재 아센자 아트스쿨과 비엘 소재 쿤스트 오크슐레에 진학해 공부했으며 개인전 15회와 인디아와 독일 등 다수 그룹전을 가졌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에 머물며 아트스쿨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작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마르셀루스 슈타이너씨는 장흥 부용사 혜원 스님과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돼 지난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장흥 부용사와 광주를 오가며 작업활동을 펼쳤다. 그는 내년 1월 3일 스위스로 출국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